

# 바이든 “동맹 복원하고 세계에 관여”...美 단결 촉구도

## 북한·한반도 문제 별도 언급 안 해 “모든 미국인 위한 대통령 되겠다”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동맹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국인 사망자가 40만명이 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분노를 수습하고 단결하자는 호소도 나왔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가 올린 바이든 당선인 취임사 전문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여기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내 메시지가 있다”면서 동맹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며 “여제의 과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의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끝내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평화, 발전,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상당 부분을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거두고 단결하자고 촉구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걸 다시 배웠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쉽다”며 “불과 며칠 전 폭력이 의회의사당의 기반을 흔들려고 했던 이 성지에서 우리는 지난 2세기 이상 그래왔듯이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수행하기 위해 한 국가로서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양당의 전 대통령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취임식에 빌 클린턴, 조지 W.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를 깨고 불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우리가 처한 것보다 더 많은 도전을 받거나 더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한 세기에 한 번뿐인 바이러스가 조용히 전권을 휩쓸고 있다. 미국은 일년 동안 2차 세계대전에서 잃은 만큼의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수십만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며 “인종 정의에 대한 외침이 우리를 움직였다.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의 꿈은 더는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제 정치적 극단주의, 백인 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의 등장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려면, 영혼을 회복하고 미국의 미래를 담보하려면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주의에서 가장 이루기 힘든 것을 필요로 한다. 바로 단결,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단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어리석은 판타지처럼 들린다는 걸 안다”며 “우리를 분열시키는 힘이 깊고 실재한다는 걸 알지만 새로운 게 아니란 것도 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평등하게 만들어졌다는 미국의 이상과 추악한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투쟁해왔다”며 “전투는 반복되며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전, 대공황, 세계 대전, 9·11 테러 사건을 통해 그리고 투쟁, 희생, 좌절을 통해 우리의 선한 본성이 항상 승리했다”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걸 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적이 아닌 이웃으로 볼 수 있고, 위엄과 존경으로 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달라. 의견 불일치가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약속한다.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맹세하건대 나를 지지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만큼,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어두운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바이러스의 가장 치명적이고 힘든 시기를 접어들고 있다. 정치는 제쳐두고 이 팬데믹(전 세계적 인 유행병)을 마침내 ‘하나의 국가’로서 직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 文대통령, 바이든 정부 출발 “한국도 동행...같이 갑시다”

### “굳건한 동맹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데 대해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미국이 돌아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하나 된 미국(America United)”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성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를 향한 미국의 길을 항상 신뢰하며, 굳건한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하겠다”며 “보건, 안보, 경제,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현안의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드시 ‘더 위대한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한다.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백악관 집무실 ‘인종차별’ 없애고 ‘인권’ 아이콘으로 대체

### 인종차별 책상 前대통령 초상화·군부 깃발 철거 노동·인권운동가 아이콘 시저 차베스 흉상 설치 마틴 루서 킹·로버트 케네디 흉상 등도 나란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종차별주의자로 재평가 받고 있는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철거하고 노동·인권운동가 시저 차베스의 흉상을 새로 설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새 단장한 백악관 집무실 내부 모습을 묘사하면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미 대통령의 책상인 ‘결단의 책상’ 건너편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커다란 초상화를 중심으로 미국 지도자들과 아이콘들로 가득 채웠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나 로버트 케네디 전 대통령의 흉상이 벽난로 옆에 놓여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종종 시민권 운동에서 두 사람이 미친 영향에 대해 언급하곤 했다.

‘결단의 책상’ 뒤엔 노동·인권 운동의 아이콘 시저 차베스 흉상을 설치했다. 아프리카계 시민권 운동가 로사 파크스의 흉상,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유엔 인권위원회(UNCHR) 초대 위원장 등을 지낸 인권 운동가 엘리너 루스벨트 흉상도 났다.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화도 걸었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WP는 해석했다. 뉴시스

|   |                              |  |
|---|------------------------------|--|
| <b>호남신문</b> www.i-honam.com   |                              | <b>대표전화 (062) 229-6000</b><br>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
|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b>   |                              |  |
| <b>동부취재본부</b>   | <b>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b>      | <b>(061) 727-3123</b>                              |
| <b>서울취재본부</b>   | <b>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b> | <b>(02) 2238-0003</b>                              |
| <b>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b>                        |                              |  |
|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small> |                              |  |
| <small>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                              |  |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